

#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추락, 무엇이 문제인가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다'는 말은 더는 한국 사회에서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을 경계하고, 학부모와 학생은 교사를 의심하는 불신의 관계가 되었다. 요즘 불거져 나오는 학부모와 교사와의 갈등의 문제는 우리 교육계의 현실이다.

## 교권 추락의 원인은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초등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하여 교사들의 "교권 추락"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그 원인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란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과 가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16개 시·도 교육청별로 제정, 공포해 시행하는 조례를 말한다. 2010년 10월 경기도에서 가장 먼저 공포하였고 이후 광주, 서울, 전북, 충남, 제주에서 차례대로 공포하며 총 6개 지역에서 시행 중에 있다. 시도교육청별로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표현의 자유, 교육복지에 관한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학생의 인권이 확대되는 만큼 교사가 학부모가 학생을 교육할 범위가 좁아지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교권 침해 이슈와 맞물려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기도 하다. 교사들의 교권보호 조치나 학생 지도 권한은 축소되는 반면 학생인권 보호 의식은 커져 결과적으로 교권 추락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여론조사공정이 7월 24일~25일 이틀간 실시한 '교권추락 원인'과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교권 추락의 원인이 "학생의 인권을 강조한 학생인권조례" 때문이라는 의견에 '매우 공감'과 '어느 정도 공감'을 합한 '공감한다'가 55%이며, '거의 공감하지 않음'과 '전혀 공감하지 않음'을 합한 '공감하지 않는다'는

34.2%로 나왔다. 알앤씨치가 7월 26일~28일까지 실시한 '교권 강화를 위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사에서 찬성한다가 44.4%를 기록하여 2위 반대한다(32.3%)에 12.1%p 차이로 선두를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우리 학교에서 교사의 학생 체벌 문제가 심각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교사가 체벌은 커녕 제자에게 구타를 당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교단을 떠나는 상황이 속출하고 있다. 교사에 대한 교육 활동 침해 행위는 2020년 1197건에서 2021년 2269건, 2022년 3035건으로 증가 추세다. 폭언, 모욕, 수업 방해 등이다.

학생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인권 조례 도입 후 학교 현장 분위기가 급변했다. 2011년 경기도 한 고교 교사는 수업 중에 휴대전화로 영상 통화하는 학생을 훈계했다. 학생 태도가 불량해 4~5초간 옆드려뻔쳐를 시켰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은 이 교사가 학생 인권을 침해했다며 징계했다. 이후 교사가 학생 잘못을 지적하는 것까지 "인권침해"로 몰고 가는 학생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체벌 대신 교사가 사용하던 '상·벌점제'도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폐지됐다.

2014년 아동학대 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다 '학대' 혐의로 신고당하는 경우도 빈발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고발당해 수사가 시작된 사건은 1252건이었다.

같은 시기, 저출산 여파로 한 명의 자녀를 지나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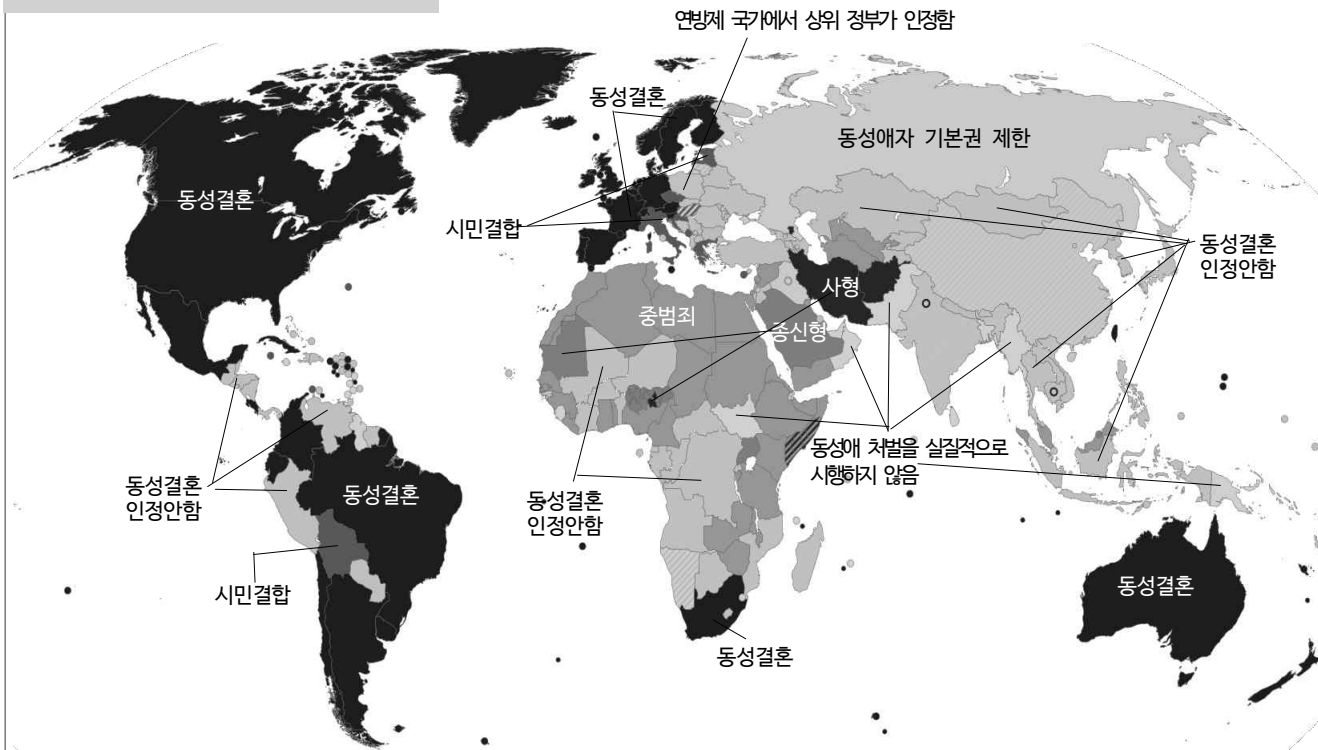
떠받드는 가정 분위기도 강해졌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자녀가 학교에서 조금이라도 피해 보는 걸 견디지 못하고 항의하는 부모들이 급속히 늘어났다"고 말했다. 교사를 무시하고 멋대로 행동하는 '금쪽이'와 자기 자녀만 귀한 줄 아는 부모들이 동시에 증가했다는 것이다. 학생 인권만 강조하고 학부모는 극성인데 교사들은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학부모가 보기에 교사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갈등과 불신이 쌓이고, 이런 분위기에서 학생을 훈계하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거나 교직에서 물러나는 일도 종종 생긴다는 게 교사들의 전언이다.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르면 2018~2021년 초·중·고등학교 모두 교원 정년퇴직률보다 명예퇴직률이 모두 높았던 것은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

2021년 퇴직 나이를 보면 생활지도까지 한 학급을 전담하는 초등학교원이 평균 55.9세로, 한 과목만 담당하는 중학교(57.7세)·고등학교(58.4세) 교원보다 낮았다. 학생지도의 부담과 책임, 학부모와의 갈등이 퇴직을 앞당기는 이유라고 유추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보면 2021년 교권보호위원회가 심의한 교육활동 침해 2천269건 중 7.5%(171건)는 학부모 등 보호자에 의한 침해였다.

교육부는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그 이유 중 하나로는 '교사에 대한 불신'이 꼽혔다. 자신의 아이를 가르치는 교사를 믿지 못해 '직접 개입'하고 교사는 이를 '권리 침해'로 인식하는 셈이다.

## 세계 동성애 지도



### 동성결혼 완전 승인국가

네덜란드(2001년), 벨기에(2003년), 스웨덴(2005년), 캐나다(2005년), 남아프리카공화국(2006년), 노르웨이(2009년), 스웨덴(2009년), 포르투갈(2010년), 아르헨티나(2010년), 아이슬란드(2010년), 덴마크(2012년), 뉴질랜드(2013년), 우루과이(2013년), 프랑스(2013년), 브라질(2013년), 아일랜드(2015년), 룩셈부르크(2015년), 미국(2015년), 콜롬비아(2016년), 핀란드(2017년), 몰타(2017년), 독일(2017년), 호주(2017년), 오스트리아(2019년), 대만(2019년), 에콰도르(2019년), 영국(2020년), 코스타리카(2020년), 칠레(2022년), 스위스(2022년), 쿠바(2022년), 슬로베니아(2022년), 멕시코(2022년), 안도라(2023년), 에스토니아(2023년)

### 유럽 연합 중 동성결혼도 시민결합도 허용하지 않는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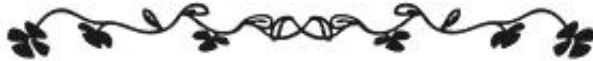
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 동성애자를 사형시키는 국가들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아프가니스탄, 예멘, 모리타나, 수단공화국, 나이지리아, 소말리아, 브루나이, 북한



## 가을 찬가



노란 국화꽃은  
가을을 노래하고,

오곡백과는  
풍요로움을 안겨주고,

오색 단풍은  
가을을 대변하고,

가을바람은  
사랑과 행복을 싣고 온다.

<김영국>

좀 성급한 가을찬가를 소환해봅니다. 장마의 태풍으로 습한 여름의 파이널 코스를 달리는 우리네 삶은 한 부분 고달픈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더위 끝에 찾아온 아름다운 손님. 가을은 신부처럼 우리의 상투적 태도를 바꿔냅니다. 더위에 지친 일상에 새로움을 선물로 주며, 다시 삶의 의미를 자각하게 합니다.

에메랄드색을 뿌린 듯 하늘에는 하이얀 새털구름으로 수놓고, 산들바람에 살며시 나와 얼굴을 흔드는 코스모스와 흰 머리를 날리는 은백색의 억새가 춤을 춥니다. 파스텔화를 닮은 듯한 산야(山野)는 아름다움을

그립니다.  
우주를 코스모스라고 처음으로 칭한 사람은 수학자 피타고라스.  
아주 작디작은 꽃잎 속에 별들이 숨어 있으니, 꽃잎 한 장에서 우주를 다 본 것 아닐까요.

바람이 시원해집니다.  
시끄러운 세상사에서도 땅은 참 의연합니다. 봄에는 가뭄, 여름에는 홍수로 사람의 마음을 애태웠지만 그럼에도 땅 흘리는 농부에게 땅은 풍성한 곡식으로 진지한 응답을 합니다.

때론 증오의 불길이 수천 목숨을 앗아가고 복수의 칼날을 날카롭게 버리는 세상. 욕망과 미움은 점점 더 속도를 내며 달립니다.  
그럼에도 바깥의 가을은 여지없이 밤부터 우리의 문을 노크합니다.

영원한 더위는 없다고.  
영원한 고난은 없다고.  
이것도 다 지나갈 것이라고.  
그러므로 변치 않는 것을 붙잡으라고.

이제 바깥이 더워 실내에 은거했던 사람들은 시원한 강가로 나와보라.  
사무실에 앉아서 오늘도 재택의 숫자 싸움을 했던 사람들도 저 하늘을 보라.

실패와 거절감의 그림자에 가려, 우울한 인생의 뒷안길을 걷고 있는 젊은이들은 다시 별판을 달려보라.

흥심을 품고 어둠의 종이 되었던 사람들은 가을의 빛을 온몸으로 맞아보라.

다리가 떨리고, 가슴이 답답한 사람들은 집 밖을 나와 끝없이 열려있는 하늘을 보라.

가을 들녘은 왜 그토록 어리석게 사느냐고 묻는 듯합니다. 조금이라도 이 땅의 의연함을 배울 수 있지 않느냐고 가을은 말을 걸어옵니다.

이 가을 앞에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농심(農心)을 읽습니다. 고개 숙인 벼를 보고 겸손의 미덕을 배웁니다. 인고의 결실로 미래를 준비하는 자연의 오묘함을 배웁니다. 알알이 익은 과실에 태풍과 바람, 천둥과 가뭄이 낳은 위대한 인내의 열매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 가을은 우리에게 겨울을 준비하라는 사랑의 기회를 배우게 합니다.

이 가을 저 높은 하늘에서 인생을 보시고 손짓하시는 그분을 뵙니다.

여러분의 성공지기  
**박인용** 월드와이드교회  
담임목사



### 월드와이드교회 안드로이드 어플리케이션(app) 출시



언제 어디서나 월드와이드 교회 박인용목사의 은혜로운 설교와 교회소식을 내 손안에서 받아 볼 수 있는 안드로이드 전용 어플리케이션(app)

#### \*스마트폰에 앱을 설치하는 법

'안드로이드 마켓'을 클릭->검색에서 '월드와이드교회' 라고 기록 후 검색하여 클릭-> '다운로드' 클릭->'동의 및 다운로드'를 클릭->설치 완료 후 '월드와이드교회' 아이콘을 클릭하여 설치 상태를 확인

\*아이폰(iPhone) 어플리케이션(app) 'twitter(트위터)' 'facebook(페이스북)' 'me2day.net(미투데이)' 와 같은 SNS (Social Network Service) 도 곧 출시!

박인용 목사  
주일설교방송 안내



- [www.wwch.or.kr](http://www.wwch.or.kr)
- 극동방송 라디오 FM106.9  
청년설교(화, 저녁 10시10분)

# 북한, 심상치 않은 식량부족

북한 경제는 2016년의 대북제재 이후 커다란 곤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곤란은 2020년 초반 북한당국이 코로나19 발생을 경계하여 전격적인 국경봉쇄 조치를 실행한 이후 더욱 커지고 있다. 팬데믹 시작을 전후로 '식량전매정책'의 파탄으로 북한 각지에서 기근이 확산되고 있다.

## 북한 주민 46일 치 식량값으로 미사일 쏘다

북한은 2022년 71발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 발사 비용은 북한 전체 주민이 46일간 먹을 수 있는 쌀 값과 맞먹는다는 평가다. 심각한 만성 식량난에도 불구하고 미사일 발사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쏟아부었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서방보다 생산 비용이 적게 드는 북한 생산 단가를 적용해도 약 2600억 원(2억 달러)을 탕진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전했다. 이는 쌀 50만 톤을 살 수 있는 금액으로, 북한 모든 주민이 46일간 먹을 수 있는 양이자 올해 북한 식량 부족분(80만여 톤)의 60% 이상을 충당할 수 있는 규모이다. 특히 8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1430억 원(1억1000만 달러),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43발 발사에는 500억 원(3900만 달러)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국방연구원의 ‘북한 군사포럼’에 따르면 ICBM은 한 발당 최대 3000만 달러, IRBM(중거리탄도미사일)은 500만 달러, SRBM은 500만 달러의 비용이 소요된다.

## 식량부족으로 아사자 속출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으로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식량 가격이 코로나 발생 이전보다 더 높은 상태로 올라서 식량 상황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미 북한 내부에서는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으며 특히 함경도 지역에 다수의 아사자가 발생했다고 전해진다. 최북단인 함경도는 북한 내에서 특히 경제적으로 낙후된 변방으로, 코로나 사태 발생하기 이전에는 장마당 등을 통해 북한 전역에 식량 유통이 가능했지만 오랜 기간 봉쇄가 이어지면서 외곽 지역의 식량 사정부터 악화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 농촌진흥청의 발표에 따르면 북한의 2022년 식량 생산량은 451만 톤, 2021년 469만 톤으로, 지난해 식량 생산량은 전년보다 감소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FAO)는 지난해 7월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를 통해 북한을 외부 식량 지원이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하기도 했다.

## 북한의 경제 상황

### ■특수 종이 잉크 수입 못 해 지폐인쇄 중단

북한은 경제가 악화되고 수출입이 중단되면서 더는 지폐를 인쇄하지 못하게 되었다. 지폐용 특수 종지와 잉크를 수입하지 못하게 되면서, 질 낮은 종지로 돈표를 발행했다. 북한 내부 취재기자들에 의하면 돈표는 나중에 현금으로 바꿔주겠다고 해도 믿어주는 장사꾼들이 없다고 한다. 이렇게 돈표는 시장에

서 잘 유통되지 않아 주민들 사이에서 돈표에 적혀 있는 금액보다 낮은 값어치로 유통되고 있다. 5천 원권 돈표는 3500원 정도의 값어치로 인정받고 있다. 이로 인해 당국에선 ‘포치안’을 발간하여 돈표의 가치는 실제 현금과의 가치가 같다고 발표했다.

### ■국경차단으로 경제난 심각

3년간의 국경봉쇄로 개인과 민간의 경제활동이 제한되면서 주민들의 삶이 많이 어려워졌다. 북한 경제 악화는 도시지역부터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무역업과 운송업에 종사했던 도시 주민들은 국경봉쇄와 무역 차단으로 인해 수입이 끊겼다. 국경이 봉쇄되기 전에 무역회사는 주민들이 캐온 산나물과 한약재를 유통하는 방식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중국과의 교류가 끊기면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었다. 국경과 가까운 도시 거주자는 중국에서 물품을 입수·운반하거나 도매업에 종사했는데, 무역에 관련된 일감들이 없어져 집권층의 수입이 없어진 사람들이 많이 나타났다. 공장과 집에서 가발, 의류 등 위탁가공 무역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수입이 없어졌다.

### ■생필품 부족, 마취제 없어 노인과 유아 사망

비·반사회주의 행위를 금지하고 비사회주의 현상을 없애라는 중앙의 지시에 따라 ‘돈주’가 가장 먼저 표적이 됐다. 그들은 도매, 운수 등을 조직적으로 운영하였는데 중국에서 버스를 수입하여 장거리 버스시스템을 만들고 트럭과 화물차를 수입하여 운수회사를 운영하였다. 도시와 지방 간 유통이 막히고 시장의 흐름이 막히면서 2020년 후반부터는 생활필수품과 의약품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마취제, 결핵약 등의 치료제가 없어 유아와 노인 중심으로 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농촌경제가 풍족한 상황은 아니어도 도시 주민들은 근교로 이삭줍기를 하는 행렬이 생겼고, 2021년에 들어서는 농촌에 가서 구걸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 ■주민들 현금 수입 감소, 장마당 통제 강화

주민들의 현금 수입이 떨어진 한편 시장에 대한 간섭도 강화되었다. 11년 전인 2012년에 청진 장마당에서 찍힌 사진을 보면 장마당에서 쌀이 판매된 것 알 수 있다. 도시 주민 70% 정도는 국가 배급이 없는 상황에서도 노동수입으로 장마당에서 현금으로 식량 구입을 해서 먹고 살았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배급제가 많이 바뀌었다. 국가 운영에 필요한 최소 단위인 당, 군, 경찰, 보위부, 행정, 군수산업 종사자, 일부 기업소 외에는 배급 자체가 없어졌다. 당시 주민들에 대한 배급이 없어지면서 장마당이 자연 발생하여 주민들은 현금으로 식량을 구입, 배급 없이 먹고 살았다. 2003년에 합법화가 된 식량 매매에 대하여 식량의

출처 증명을 요구하거나 곡물 가격 억제를 지시하는 등 시장을 다시 제한했다. 장마당에서의 식량 구입이 어렵도록 하고 국영 식량 판매 상점인 량곡판매소를 활성화시키려는 의도에서였다. 량곡판매소에서 파는 곡물 가격은 시장가격보다 20~30% 저렴하게 판매됐다. 장마당에서 백미는 6천 원, 옥수수는 3천 원에 판매되었다면 량곡판매소에서는 백미 4200원, 옥수수 2200원으로 고정가격으로 판매했다. 이러한 국가 통제로 식량 장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량곡판매소에 자유롭게 쌀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 운영 초반 량곡판매소에서는 한 달 단위로 가구당 25kg씩 구매할 수 있도록 했지만 식량난이 심해진 이후로는 가구당 3~7kg로 양을 줄여 며칠 먹을 분량씩만 주었다.

## 해커부대, 정권유지 생명줄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가 2021년 미국과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자료를 인용해 보도한 북한 해커부대가 사이버 공격으로 취득해 김정은 손으로 들어간 부정 수익의 규모는 23억 달러, 우리 돈으로 3조84억 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미 국방부와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의 해커부대가 지난 한 해만 갈취한 가상화폐 규모가 약 2조1300억 원에 달하고, 최근 5년 동안 약 4조 원에 달하는 가상자산(가상화폐)을 훔쳐 탄도미사일 및 핵무기 개발 자금으로 사용해 왔다고 전했다.

북한의 인터넷 사용층은 전체 인구의 1%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세계 3~5위 수준의 막강 해커군단을 보유 중이다. 일찌감치 유소년 시절부터 재목을 발굴해 특별 관리하면서 엘리트로 육성하고 있다.

세계 1700여 명이 참가한 미국 IT 기업인 해커어스 주최 해킹대회에서 1~4위를 북한 대학생이 휩쓸었다. 북한의 해커부대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규정한 3대 전쟁수단의 하나다. 핵과 미사일 그리고 사이버전을 북한 인민국의 무자비한 타격 능력을 담보하는 ‘만능 보검’이라고 강조할 정도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해커부대를 가동해 사이버 범죄를 통한 핵과 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물론이고, 제재로 어려움에 빠진 북한 경제까지 뒷받침하는 기반이 된다. 대북제재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투입하는 상황에서 통치자금 등 돈줄이 마른 김 위원장이 정권 유지의 버팀목으로 가상자산 등 해외 해킹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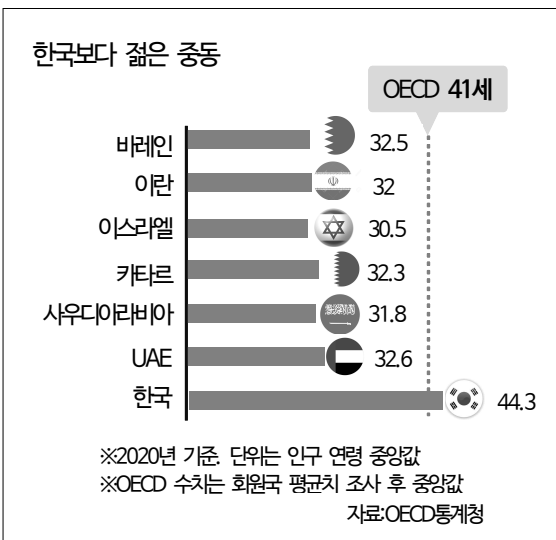
북한의 해커부대 규모는 국방부가 발행한 국방백서에 따르면 6800여 명의 사이버전 인력을 운영하며, 사이버 전력 증강을 위해 계속 노력 중이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5위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정예요원을 보좌하는 차세대 핵심 인력까지 포함하면 1만2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본다.

# 제3의 중동 바람, 다시 보고(寶庫)가 될 것인가

1970년대 제1차 중동 붐을 통해 한국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경험과 외화 획득으로 경제 도약을 견인할 수 있었다. 과거 한국 경제에 혼풍을 안겨준 중동 붐이 최근 다시 기지개를 켜면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중동, 석유 없는 미래 대비

1970년대와는 또 다르게 첨단기술과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해외투자 지역으로 중동이 새삼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른바 '탈석유'를 지향하며, 미래 먹거리 산업을 새롭게 조성하려는 중동 국가들의 전략은 향후 또 다른 '중동 투자 열풍'을 불러일으킨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 등이 속해 있는 중동아시아·북아프리카(MENA) 지역은 30세 미만 청년 인구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젊은 국가'다. 단순히 국민의 평균 연령을 넘어 중동은 개혁과 개방을 추진 중이고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 ■디지털 산업

중동지역 국가들은 IT 사회로 전환에 역점을 기울이며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다. KOTRA에 따르면 중동에서는 모바일 지갑, 선구매 후불 결제 카드(BNPL) 등 디지털 결제가 빠르게 확산 중이다. 2021년 상반기 기준 중동의 핀테크 투자 금액은 총 391억 달러, 핀테크 기업 수는 800개 이상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부 차원에서 교육·물류·헬스케어·공공 영역 등 각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정책적으로 추진 중이다. 기반이 되는 클라우드 인프라에도 투자를 진행 중인데 2027년까지 중동의 퍼블릭 클라우드 시장은 연평균 21%, 98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구글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와 함께 데이터센터를 건설했다. 아마존웹서비스는 바레인과 UAE에 클라우드 리전을 오픈했다. 한국에서는 스타트업 베스핀글로벌이 UAE IT서비스 업체 이엔엔터프라이즈에서 약 14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 ■게임 산업

빈 살만 왕세자는 직접 게임사 인수에 나서는 등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많다. 그가 운영하는 국부펀드 PIF는 2022년 엔씨소프트와 넥슨 주식을 지속적으로 사들였다. PIF는 한국 게임사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게임사들의 지분도 연달아 사들이고 있다. 한국게임에 지출이 높은 나라 1위는 카타르다. 카타르는 1인당 월평균 76.21달러(약 9만6200원), UAE는 68.98로 2위에 올랐다. 중동지역에서 가장 즐기는 게임으로 펠어비스의 인기 PC게임 '검은사막'으로 확인됐다.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UAE, 파키스탄 등 이슬람국가 6곳 중 4곳 모두 검은사막이 1위로 나타났다. 검은사막은 전 세계 150여 개국에 12개 언어로 서비스되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게임이다.

### ■관광 산업

중동의 새로운 먹거리는 관광이다. 아부다비는 아랍에미리트(UAE)의 수도로 UAE 석유 매장량의 94%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UAE의 토후국 중 하나인 두바이가 마천루의 관광 도시라면, 아부다비는 옛 전통문화가 그대로 유지된 도시다. 아부다비는 '오일머니'를 쏟아부어 2030 도시개발 계획을 진행 중이다. 그중 핵심은 270억 달러(약 35조5590억 원)를 들인 '사디아트 아일랜드 프로젝트'다. 아부다비는 관광 인프라와 시너지를 낼 글로벌 기업들에게 러브콜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영국, 프랑스, 미국, 독일 이어 아시아에서는 중국 다음으로 8번째로 한국 지사가 설립됐다.

## 중동 국별 경제 개발 전략

### ■사우디아라비아 - 사우디비전 2030

- 비석유 부문 GDP 기여도 50% 추진
- 민간 GDP 비중 65% 및 제조업 육성 추진
- 외국인 직접 투자 수준, GDP의 5.7% 추진

### ■UAE - 아부다비 경제비전 2030

- 비석유 부문 GDP 기여도 64% 추진
- 중소기업 육성

### 두바이 산업 전략 2030

- 6개 분야 산업육성·우주산업, 해양 산업, 알루미늄·금속가공산업, 제약 및 의료장비, 식품, 기계·설비

### ■쿠웨이트 - 쿠웨이트 비전 2030

- 석유 의존 탈피 및 산업 다각화 추진
- 비탄소 분야 산업 육성: 북부 개발, 신재생·그린 에너지, 민자발전 사업, 철도·메트로, 신도시

## 중동에서 투자 유치한 국내 콘텐츠·ICT 기업들

기업	업종	투자 현황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웹툰, 연예 매니지먼트, 음원 유통 등 종합콘텐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3년 1월</li> <li>•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퍼블릭 인베스트먼트펀드(PIF), 싱가포르투자청(GIC) 등 해외 국부펀드 통해 1조2000억 원</li> </ul>
넥슨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3월</li> <li>• PIF에서 약 2조4000억 원 투자</li> </ul>
엔씨소프트	게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3월</li> <li>• PIF에서 약 1조1000억 원 투자, 2대 주주 등극</li> </ul>
베스핀 글로벌	클라우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2년 12월</li> <li>• 아랍에미리트 디지털서비스 전문기업 이엔엔터프라이즈에서 1400억 원 투자</li> </ul>

## 한·중동의 교류 역사

1973년	○ 제1차 중동 붐   제1차 석유 파동
	• 삼환기업:한국 건설업체 최초로 중동에 진출하여 사우디아라비아가 발주한 총연장 164km의 아울라-바이칸 간 고속도로를 수주
1975년	○ 대립산업:국내 건설사 최초로 이란 진출
1979년	○ 제2차 석유 파동
2005년	○ 삼성물산:두바이에서 세계 최고층 '부르즈 할리파' 착공
2009년	○ 한국전력:UAE 바라카 원전 수주
2010년	○ 제2차 중동 붐
	• 삼성엔지니어링:가스·오일 플랜트 분야 63억 달러 수주
2011년	○ 한국 대 사우디 플랜트 수주 실적(166억 달러) 정정 도달
2022년	○ 제3차 중동 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사우디 투자 포럼' 총 300억 달러 규모의 MOU 26건 체결</li> <li>• 현대건설·삼성물산: 10억 달러 규모의 '네움시티'터널 공사 수주</li> </ul>
2023년	○ 한·UAE 정상회담 통한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

# 통일 한반도는 필연이다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었다. 휴전으로 전쟁을 중단한 남북한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고 70년이 지난 지금 모든 면에서 큰 격차를 보인다. 통일문제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중대한 국가적 아젠다이며 평화와 도약을 위한 미래전략이다. 통일준비를 위해 분단 비용을 줄이려는 비전과 변화된 남북관계 및 동북아 정세를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 통일해야 하는 이유

우리는 5천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단일 민족국가로 지구상에 우리 민족만큼 오랫동안 단일 민족국가로 문화와 전통을 유지해온 국가는 별로 없다. 70여 년 간의 한반도 분단은 동서 냉전이라는 국제정치적 강요로 이루어진 결과물이다.

우리의 열망인 남북통일은 새로운 영토확장의 시도가 아니라 70여 년 전 분단 이전으로의 국토 원상회복을 의미한다. 우리는 6.25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도 경험하였으며 이와 같은 민족분단의 고통에서 벗어나 조속히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여 분단에 의한 민족의 고통과 전쟁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여야 한다. 북한은 끊임없이 미사일을 발사하여 전쟁 불안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반도는 분단의 적대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반쪽의 유사 평화에 안주하려는 경향이 점차 짙어지고 있다.

통일이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은 21세기 국제사회의 주역으로 부상할 수 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이 북한의 양질의 노동력과 값싼 토지 그리고 천연자원(지하자원 7400조 원)이 결합하면 놀라운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여 세계 경제 대국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연구보고도 이미 나와 있다.

2007년 골드만 삭스는 한국이 통일되어 2050년이 되면 일본, 독일 등을 누르고 세계 2위의 경제 부국이 되어 국민소득 1인당 8만3천 달러로 미국의 뒤를 이을 것으로 예측했다.

21세기 노스아틀란티아라고 불리는 조지 프리드만 박사는 그의 저서 100년 후(Next 100 Years, 2010년)에서 “통일을 이룩한 한국은 2050년경이면 중국과 동북 3성을 놓고 다투게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통일 이후 수십 년은 여러 갈등으로 고통스러운 기간이 오겠지만 통일 한국은 인구 7000만으로 일본 못지않으며 산업, 경제, 군사 분야에서 일본을 위협할 수준까지 성장할 것이며, 통일되면 혼란해진 중국에서 만주 지역은 큰 기회가 열릴 것으로 봤다.

## 통일에 가장 우려되는 것, ‘통일 비용’

통일에 쓰이는 비용을 부담스럽게 여겨 남북통일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다. 통일을 꺼리는 사람도 적지 않다. 통일 비용 때문이다. 그런데 통일을 하지 않으면 분단 비용을 들여야 한다.

분단 비용과 통일 비용을 구분하여 인식할 필요가 있다. 통일 비용과 분단 비용은 전혀 다르다. 통일 비용은 통일하고 나면 잠깐만 들어가는 돈이다. 일시적인 투자비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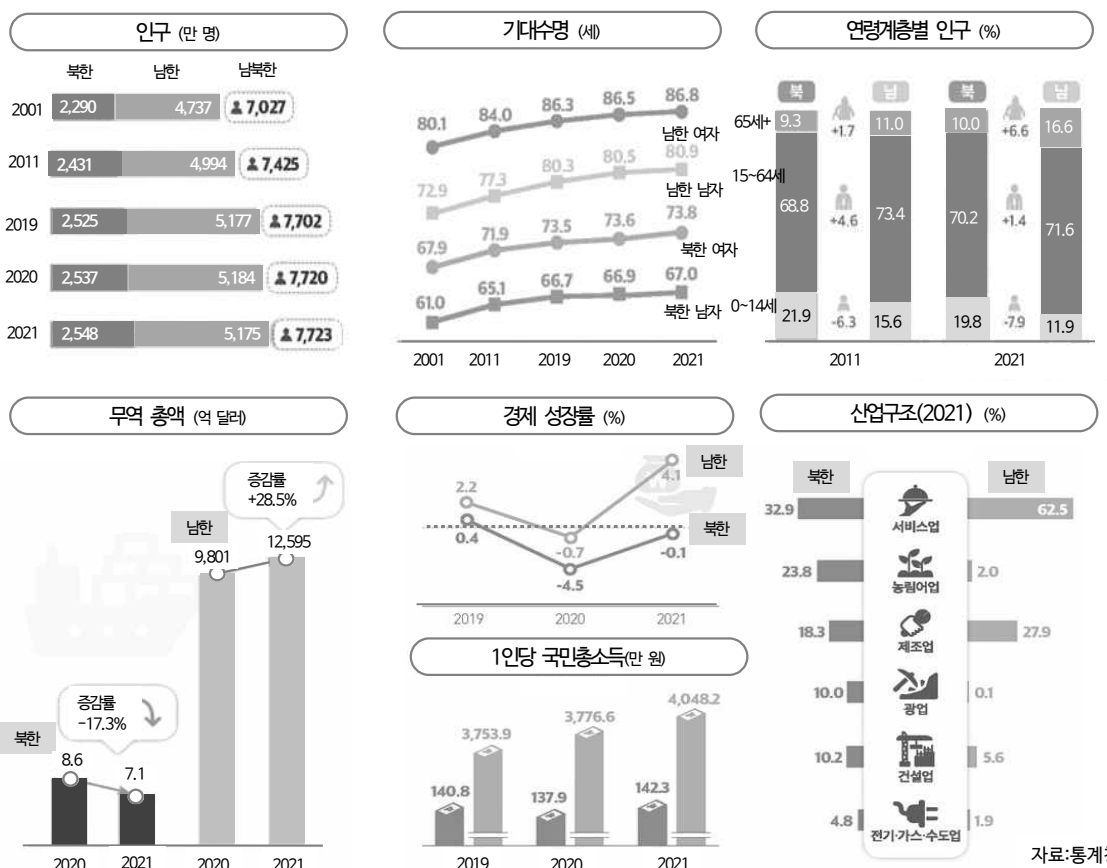
분단 비용은 분단 상태 유지를 위해 소모하는 비용이다. 안보 유지비용과 국제사회에서 받는 정치·외교적 불이익, 심지어 이산가족의 아픔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분단 비용은 대결과 갈등 때문에 지출되는 유·무형의 비용이다. 분단 비용은 통일이 이루어지면 소멸하는 소모적 비용이다. 분단 비용은 통일하지 않는 한, 무한정 들어가는 돈이다. 반영구적인 투자비용으로 분단 비용은 남북이 지불하는 군사비, 외교비용 등이다.

남한은 국내 총생산의 2~3%를 군사비로 부담한다. 북한은 무려 30%를 군사비로 지출한다. 현재 남북한 병력은 모두 160만이 넘는다. 남한 정규군 약 65만, 북한 정규군 약 108만 명이다. 그러나 통일 후에는 30만에서 40만 명이면 충분하다. 통일 비용은 통일에 대한 투자 성격을 지닌 일종의 사회 자본이다. 미래를 위한 투자의 성격이다. 통일 비용은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 해소 및 경제 통합 비용, 정치·사회·문화적 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소 비용 등을 포함한다.

분단이 해소되면 막대한 분단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도 된다. 남북 경제 통합으로 시너지효과가 발생하는 등 장기적으로는 실익을 얻을 수 있다.

통일 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인프라 비용은 북한에 도로를 놓고, 철도를 까는 일은 우리 토목·건설사들이 할 것이다. 건설 수요가 늘어나면 시멘트와 아스콘, 철강을 생산하는 업체도 바빠진다. 일자리도 늘어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매년 13조 원을 인프라건설에 투입하면 연평균 14만5000개씩, 5년간 72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만성적인 임금부족이 일순간 해결될 수 있다는 의미다.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면서 경제성장률도 1.03% 높아진다. 인프라 분야뿐 아니다. 2배로 넓어진 국토, 늘어난 인구 2500만 명은 위축된 내수산업에 돌파구가 될 수 있다. 통일 혜택은 통일 비용보다 크다. 북한 경제를 재건하면서 생기는 남한의 경제적 이득 및 소득 증대를 생각해야 한다. 통일 한국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협인 코리아 리스크를 사라지게 한다. 한반도와 동북아에 대한 불안감을 떨치게 한다. 통일 한국은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가장 큰 위협이 사라지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핵문제, 장거리 미사일 문제 등 안정을 해치던 악재들이 사라진다. 신용 등급 상승, 외국인 투자자 유치, 국방비 절감 등은 분명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것이다. 국가 브랜드를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 2022 북한의 주요 통계지표



자료:통계청

# 독일 통일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한반도 분단이 70년을 넘었다. 통일은 더는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제2차 세계대전으로 형성된 냉전 구도를 극복하고 우리보다 앞서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룬 독일의 사례를 통해 한반도 통일을 위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독일의 분단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독일은 네 개의 점령지역으로 나뉘었다. 이는 연합국이 독일의 결합을 막아 전쟁을 도발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였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과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나라가 두 개의 진영을 형성하여 갈등, 긴장, 경쟁 상태로 대립한 냉전체제가 계속되면서 프랑스·영국·미국의 점령지역은 독일 연방 공화국이 되었고, 소비에트 연방의 점령지역은 공산 국가인 독일 민주 공화국이 되었다. 이처럼 외세에 의해 분단되어 두 개의 정부가 수립된 독일은 서로가 독일 연방의 적법한 계승자라 주장하며 경쟁했다.

그 이후 1961년 동독이 쌓기 시작한 베를린 장벽이 만들어지고 콘크리트로 축조된 장벽을 따라 곳곳에 감시탑이 설치되었다. 동독 정부는 이 장벽을 ‘반파시즘 방벽’이라 불렀고, 서독 정부는 ‘수치의 벽’이라고 일컬었다. 벽이 세워진 뒤 동독의 주민들은 죽음을 각오하고 장벽을 뛰어넘었으며 탈출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경비병에게 발각되어 죽는 경우도 많았다.

분단 이후 동독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더이상 발전이 없었으나, 서독은 이른바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서방과의 동맹을 강화하며 소련 및 동구 여러 나라와 화해 외교를 펼쳤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동독과 서독은 함께 국제 연합에 가입하는 등 점차 변화하기 시작했다.

## ‘니콜라이 교회’ 기도회, 독일 통일의 시작

독일 중동부 상업도시인 라이프치히 한복판에 있는 성니콜라이교회는 독일 통일의 ‘불씨’를 일으켰다.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평화 혁명이 시작된 곳이다. 성니콜라이교회는 1982년 9월부터 ‘갈을 쳐서 쟁기로’라는 슬로건 하에 평화기도회를 개최했다. 그 당시 동독의 러시아 미사일 설치와 서독의 나토(NATO) 핵무기 설치 문제로 두 독일이 대립하는 상황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청소년들과 젊은이들(15~22세)이 평화를 위하여 기도회를 시작했고, 그 모임은 매주 모이는 ‘평화를 위한 월요기도 모임’으로 발전되었다. 그 자리에는 평화를 열망하는 모든 사람이 동참할 수 있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 공산주의자와 반체제인사 등 누구도 배제되지 않았다. 처음 시작된 기도회는 순조롭지 않았다. 사회주의의 몰락이 가시화되고 있을 때, 수많은 이들이 운집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당국은 성니콜라이교회로 가는 길을 차단하였다. 하지만 어떠한 방해도 평화를 향한 갈망을 이길 수는 없었다.

1989년 10월 9일은 역사적인 날이다. 평화와 시민의

권리 그리고 인권 신장을 요구하는 3000여 명의 군중이 몰려들어 성 니콜라이 교회, 성 토마스 교회, 성 요한네스 교회를 가득 채웠다. 민주화의 수확기가 도래한 것이다.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는 평화기도회가 열렸고, 개혁 교회에서는 한스 유르젠 지버스 목사가 좋은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이르는 길이 옳아야 하고 사용하는 수단도 정당해야 한다며 비폭력을 호소했다.

무혈혁명은 이렇게 마련되고 있었다. 광장과 길거리에는 이미 70,000여 명의 시위대가 운집해 있었다. 그들은 유리창 하나 깨지 않았다. 1989년 10월 9일은 비폭력 저항운동 역사에도 하나의 이정표가 놓이는 날이 되었다.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동원되었던 경찰은 결국 철수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시 라이프치히 중앙위원회의 치안 책임자였던 말케는 죽기 직전에 “우리는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있었으나 기도와 촛불에 대해서는 그러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결국, 1989년 라이프치히의 성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된 평화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여행의 자유’를 요구했다. 1989년 11월 9일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나서는 일반인들까지 서독으로 이동했다. 평화 시위대 구호도 ‘언론의 자유’, ‘자유선거’ 그리고 ‘우리는 한민족이다’로 점차 바뀌었다. 12월 3일에는 동독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정치국이 해체되었다. 이러한 흐름은 이듬해인 1990년 5월 화해 통합 협약 등 경제와 사회 통합으로 이어졌고, 그해 10월 3일에 마침내 독일 통일이 선포되었다.

## 독일통일 이루는 과정은

독일의 통일은 대내적으로 분단 시기 서독 정부가 동독과의 교류를 꾸준히 유지함으로써 양독 주민 간 접촉이 빈번해지고 결과적으로 동독 주민들이 변화한 데에 기인한다.

독일 통일의 등식은 통일된 독일을 꺼려하는 주변국들을 설득하기 위해 시대적 환경에 대응하는 외교 전략이 중요함을 보인다. 아테나위의 서방정책은 분단의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프랑스와의 화해를 통한 평화전략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동독과의 대결적 관점에서의 서방정책이 아닌 유럽의 평화와 안정은 독일과 프랑스의 화해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브란트의 동방정책은 동독에 20~22개 사단을 주둔시킨 소련의 동의 없이 통일은 이뤄질 수 없다는 인식에 토대를 두었다.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기까지 서독은 동독을 붕괴시키기 위한 대결보다 유럽에서의 모두스 비벤디(생활방식)의 실현, 동시에 존재하거나 공존의 길을 모색하기, 무력사용을 포기하기 등 ‘공존’을 우선적 가치로 내세웠다.

콜의 통일외교는 주변 국가들의 우려와 불신을 해소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콜은 서독이 주도해 온 유럽에서의 평화적 공존 전략이 통일 후에도 일관되게 견지될 것임을 주변 국가의 지도자들에게 설득하였다. 독일 통일이 동서독만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이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인류 보편의 가치 실현에도 부합함을 계속하여 강조하였던 것이다. 서독 정부가 동독과의 교류와 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은 교류·협력이라는 ‘작은 발걸음’을 통해 분단에 따른 인간적 고통을 완화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유지하려는 목적이었다. 바꾸어 말하면 서독 정부의 ‘접근을 통한 변화정책’이라는 일종의 포용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이 대내적인 면에서 통일 성취의 촉진제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서독은 교류·협력을 ‘분단을 잇는 다리’ 또는 ‘통일을 향한 작은 발걸음’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면서도 전범국가 취급을 받았던 독일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때까지 ‘통일’이란 말은 꺼내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독일 내 누구도 가까운 시일 내에 통일이 오리라고 예측하지 못했다. 따라서 독일 통일은 통일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통일 후 통합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와 갈등을 겪기도 했다. 이 때문에 동독 경제 재건을 위한 통일비용 문제, 동·서독 주민 간 심리적 격차 문제 등 처리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통합과정에서 점차 해소되어 갔다.

독일 통일에 들어간 경제적 비용은 약 1조 유로(약 1490조 원) 규모로 추산된다. 분야별로 분석한 결과 초기 13년간 동독 지역 주민에 대한 연금과 임금 등 노동시장 보조금과 육아 보조금 등 사회보장 지출액이 총 6300억 유로(통일 비용의 49.2%)에 달했고, 나머지는 주로 경제·인프라 개발에 쓰였다. 또한, 독일 정부는 통일기금과 각 주에 대한 재정 지원금으로 전체의 23%인 2950억 유로를 지출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체제로 살아온 두 지역이 합쳐지기까지 많은 노력과 경제력이 필요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통일에 따른 편익이 비용보다 훨씬 크다고 한다. 내수 및 동유럽 시장이 확대되었고 기업의 생산이 증가하였으며, 연합군 주둔 비용 등 안보 비용이 감소하고, 세수와 정부의 자산이 증가 되는 등 분단되었을 때와 비교하여 비용이 감소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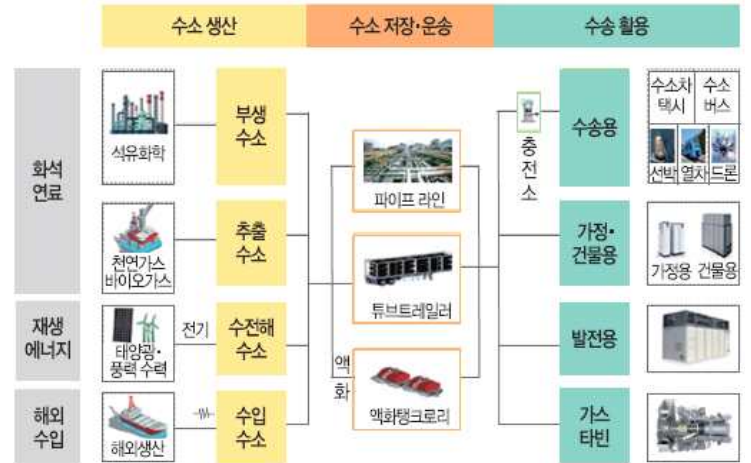
# 수소 경제 시대가 도래하다

수소는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한 필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수소경제 규모는 2050년까지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10% 이상으로 연간 12조 달러(약 1경 5686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생산과정에 따른 수소 생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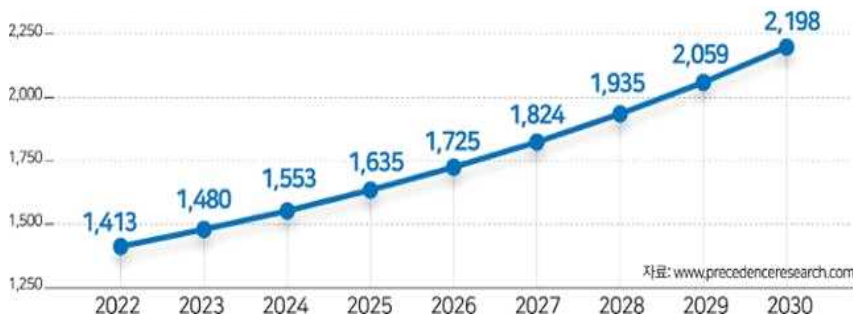


## 수소 경제 개념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국토연구원

## 수소 발전 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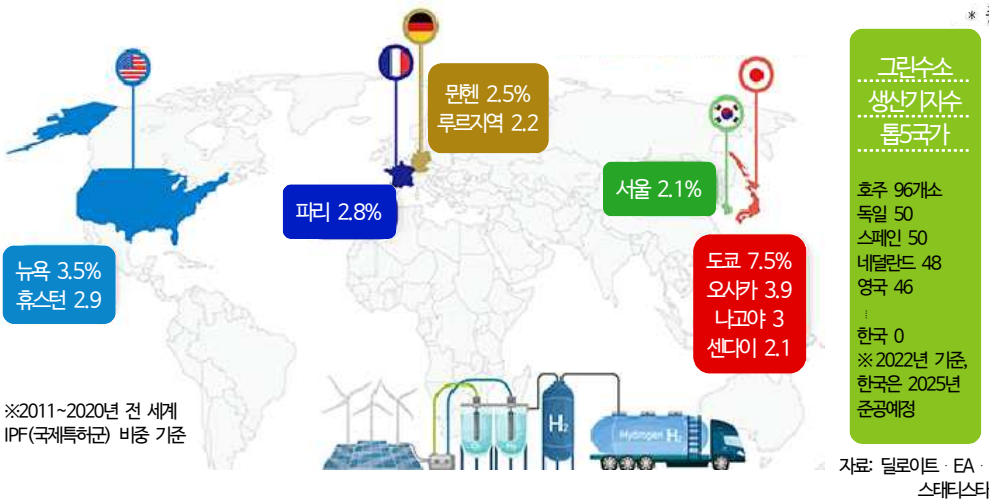


## 늘어나는 수소 특허



자료: Fuel Cells and Hydrogen Observatory 데이터 가공

## 전 세계 톱10 수소 혁신 클러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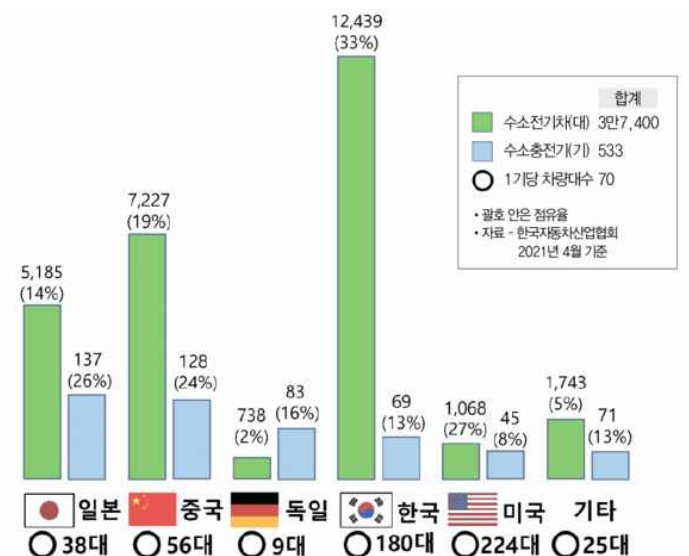
※2011~2020년 전 세계 IPF(국제특허군) 비중 기준

자료: 딜로이트 EA·스테티스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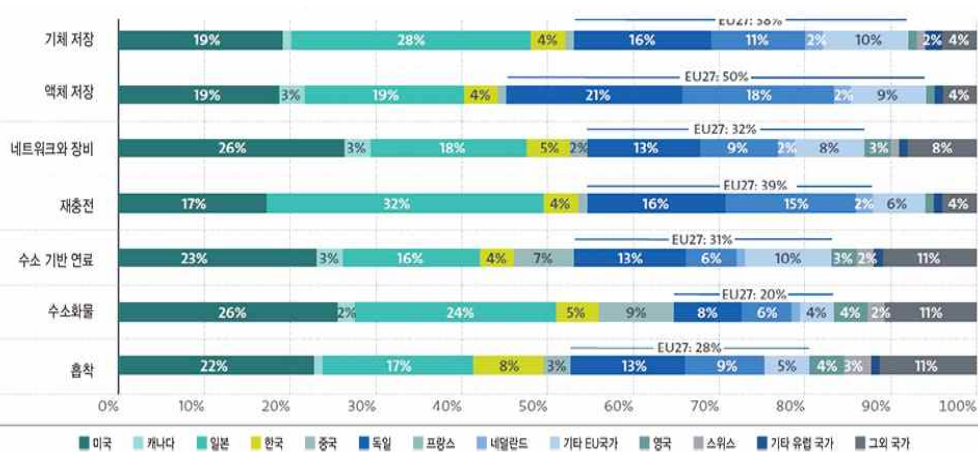
## 국내 수소생산 인프라 현황

생산기지(11기)	창원 삼척 평택 부산 대전 춘천 인천 완주, 광주, 창원 대구 등
출하센터(2기)	당진 여수 등

## 세계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구축현황



## 국가별 수소 저장, 변환, 분배 특허 기술 비율





## 당신의 뼈는 말하고 있다

교실에 걸려 있는 인체골격 그림은 종종 뼈가 생명력이 없는 물질로, 단지 신체 구조를 지지하는 역할만 한다는 인상을 준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 동안 과학자들은 골격계가 이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과학자들은 이제 신체의 다른 부분에 있는 뼈들 사이의 신호를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스미소니언의 한 간행물에서는 이러한 발견을 “당신 집의 기둥과 서까래가 서로 통신하고 있다는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된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연구자들이 인체를 계속 연구하면 할수록, 그들은 수용체, 신호분자, 전자 연쇄반응 등을 통한 분자 대화를 통해서 기관계가 본질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생화학의 복잡한 분자 언어들은 우아하며 접근하기 어려운 창조주의 지혜를 나타낸다.

“과학자들은 뼈세포가 다른 장기에 신호를 보내는 모든 방법과 어떻게 분자 메시지를 해석하고 반응하는지를 해독하는 중이다.” 과학자들은 뼈와 신장, 지방세포, 근육, 뇌, 심지어 장내 미생물 군집 사이의 화학적 대화를 문서화했다. 과학자와 의사들은 더 많은 연구를 통해, 이러한 화학적 대화를 골다공증과 같은 질환의 치료법을 개발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생리학자인 로라 맥케이브는 스미소니언지에서 “완전히 새로운 탐구 영역”이라고 말했다.

뼈에는 조골세포, 파골세포, 골세포의 세 가지 주요 세포 유형이 있다. 조골세포는 뼈를 만드는 반면, 파골세포는 뼈를 분해한다. 조골세포와 파골세포는 뼈

가 성장하고, 치유되며, 신체의 필요에 맞게 뼈의 모양을 바꿀 수 있게 해준다. 골세포는 뼈 조직의 약 90%를 구성하고 있다. 많은 진화론자는 과거에 골세포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이거나, 기껏해야 뼈 리모델링을 조절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생각했다. 세포생물학자인 린다 본왈드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동료들의 조언을 뿌리치고, 골세포를 연구하기로 했다. 그녀는 골세포가 신체의 나머지 부분과 중요한 대화를 나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본왈드가 해독한 첫 번째 화학적 대화는 골세포와 신장 사이의 대화였다. 골세포는 인산염 수치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최근 발견된 화합물인 성장인자 FGF23(fibroblast growth factor 23)을 생성한다. 연구자들은 FGF23이 부갑상선 호르몬(PTH)의 분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PTH는 궁극적으로 파골세포가 뼈를 재흡수하도록 유도한다.

다른 연구에서 생리학자 제라드 카센티는 지방 조직에서 생성되는 렙틴 호르몬이 뼈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또한 그의 연구는, 뼈는 혈당 조절을 돕고 기억력 유지를 촉진하는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단백질을 만드는 것을 발견하였다. 근육은 뼈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함께 움직이고 비례적으로 성장하는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Cell Reports 지에 게재된 본왈드가 공동 저술한 연구에 따르면, “뼈와 근육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일생 조직 질량이 일치되는 동기화가 일어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뼈와 근육 사이의 두 가지 화학적 상호 작용의 예로는 근육에서 미오스타틴과 아미노이소부티르산(BAIBA)의 생성을 들 수 있다. 미오스타틴은 근육과 적절한 비율로 골량을 유지한다. 이 연구에 따르면, “사용 중단으로 유도된 불용성 근위축은 파골세포형성 감소에 의한(골세포 전구체의 용해) 골형성 억제 효과가 있는 미오스타틴을 생성하도록 하여, 근육과 뼈의 소통을 지원한다.” 운동하면 근육은 BAIBA를 생성한다. 본왈드 박사는 BAIBA가 활성산소종(ROS)에 의해 유도되는 골세포 세포사멸을 방지하여 뼈를 보호한다는 사실을 관찰했다.

뼈세포들, 특히 골세포는 다기능적이며, 신체의 항상성(생리적 평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골세포가 척추가 없는 동물(무척추동물)에서 유래했다고 믿어야 할까? 아니면 신체가 골세포에 얼마나 많이 의존하는지가 분명한 상황에서, 다른 세포 유형으로부터 단계적으로 진화했다고 믿어야 할까? 이러한 세포의 복잡한 역할은 창조의 증거인 것이다. 각 세포는 우연히 생겨날 수 없는, 구체적이고 중요한 기능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인간 생명에 필요한 복잡성과 질서는 시행착오라는 진화론적 추론을 거스르는 것이다”라고 생물학 박사인 그렉 브루어는 Acts & Facts 지의 글 “인간의 몸 만들어보기”에서 말한다.

인체의 복잡성과 정교함은 우리가 우연한 사고로 인해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의 목적으로 지능적으로 설계했음을 상기시켜 준다.

##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우리는 경이로운 세상에서 살고 있다.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것은 인간 자신이며, 정교하고 효율적인 경이로운 기계이다. 인간의 몸은 뼈대로 부르는 연골조직과 다이내믹한 뼈의 구조물이다. 인간의 골격은 유연하고, 무릎관절과 이음매가 움직이게 되어 있다. 그러나 해로운 마찰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움직이는 부분에 윤활유가 쳐져야만 한다.

사람이 만든 기계들은 외부의 재료에 의해서 기름이 쳐진다. 그러나 인체는 필요한 모든 곳에 정확한 양으로 젤리와 같은 성분들을 만들어 스스로 기름을 친다. 그렇다. 인체는 인간의 타락으로 죄가 들어온 이후로 누적되어온 유전적 복제 오류(돌연변이)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기계인 것이다(창세기 3장).

인체는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어떤 공장보다도 훨씬 더 정교한 화학 공장들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공장들은 우리가 먹는 음식을 살아있는 조직으로 변화시킨다. 그래서 근육, 혈액, 뼈, 그리고 치아가 자라게 된다. 부품들이 사고나 질병으로 피해를 받을 때, 그것들은 수선되기도 한다. 일하고 운동하는 힘은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온다.

얼어붙는 날씨에서조차 우리의 몸은 때때로 과열된다. 그때는 몸 자체의 냉각시스템이 가동된다. 피부에 있는 수백만의 땀샘에서 땀방울이 쏟아져 나온다. 이것이 우리의 냉각시스템으로써, 체온을 떨어뜨리는 주요한 방식이다. 인간의 몸은 가열과 냉각 시스템을 담당하고 있는 자동온도 조절장치가 있어서 체온을 약 37°C (98.6 F)로 유지해 준다.

심장은 실제로 수천 마일의 혈관을 통해 혈액을 공

급하는 근육질의 펌프이다. 혈액은 신체의 모든 부분으로 음식과 산소를 공급한다. 심장은 분당 평균 6리터(1.5갤론)의 피를 펌프하고, 하루에 펌프하는 혈액의 양은 200리터(50갤론) 드럼통 40개 이상을 채우기에 충분한 것이다(이 펌프는 80년 동안 10초도 쉬지 않고 작동된다!).

그렇다. 인간의 몸은 놀라운 기계이다. 사실 이러한 장치 중 어느 하나라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그것이 지적이고, 숙련된 하나님의 작품인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 몸의 기본 화학물질인 원재료는 ‘지상의 먼지’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화학물질들이 세포조직, 기관, 시스템으로 스스로 조직화될 수는 없다. 이것은 오직 지성(intelligence)의 개입으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 열방의 다이제스트

### 이라크, '동성애' 표현 금지... '성적 이탈'로 쓰라

이라크 통신 및 미디어 위원회는 언론 매체 등에 '동성애'라는 표현을 금지시켰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이에 따라 '동성애'(homosexuality)라는 표현은 금지되고 대신 '성적 이탈'(sexual deviance)이라고 써야 한다. '성별'(gender)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 조치는 특히 이동통신, 인터넷 업체에도 적용돼 모바일 앱에서도 이같은 표현을 쓰지 못한다. 앞서 스웨덴, 덴마크에서 이슬람 경전인 쿠란 소각 시위가 잇따르자 이라크에서는 이에 반발해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불태우는 시위가 시아파 성직자들의 주도로 속출하고 있다. 이라크에서는 동성 성관계를 불법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동성애 사회를 억압할 목적으로 느슨하나마 처벌 조항을 정해놓기는 했다. 세계에서 동성 성관계를 불법으로 정한 국가는 60여 곳이며, 합법화한 국가는 130여 곳이다.

### 파키스탄, 인도에 크리켓 월드컵 선수단 파견 결정

파키스탄은 영유권 문제로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는 인도에 고심 끝에 크리켓 월드컵 선수단 파견을 결정했다. 인도는 오는 10월 5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크리켓 월드컵 대회를 연다. 고심은 인도가 지난해 10월 올해 파키스탄에서 열리는 크리켓 아시아컵 대회에 자국 선수단 파견을 거부하면서 비롯됐다. 이에 파키스탄 크리켓 선수단 감독기관인 파키스탄 크리켓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도에서 개최될 월드컵 대회에 선수단을 보내지 않겠다고 맞받았다. 1947년 인도가 영국 식민지배에서 벗어날 때 인도로부터 분리 독립한 파키스탄은 인도와 카슈미르 영유권 문제 등으로 세 차례 전쟁을 치르는 등 적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16세기 영국에서 탄생한 크리켓은 남아시아에서 가장 인기 높은 스포츠로 인도와 파키스탄에서 모두 '국민 스포츠' 대접을 받고 있다.

### 아프리카 '니제르' 쿠데타로 정권 전복되다

서아프리카 니제르에서 쿠데타를 주도한 대통령 경호실장인 압두라흐마네 차야니 장군은 자신을 국가수호위원회 의장이라고 밝혔다. 이번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은 국가수호위원회 의장을 국가 원수로 내세우고 있다. 차야니 장군을 비롯한 일부 군인들은 7월 26일 쿠데타를 일으켜 수도 니아메의 대통령궁을 봉쇄하고 모하메드 비줌 대통령을 구금했다. 니제르는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한 이후 다섯 차례나 쿠데타가 발발했다. 2020년 1월 처음으로 민주적 절차를 통해 비줌 대통령이 취임했으나 또다시 쿠데타로 밀려났다. 보통 아프리카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전형적인 군사 쿠데타지만, 이번엔 서방국가들의 반응이 심상찮다. 미국과 프랑스는 니제르에서 군 기지를 운영하며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을 소탕하기 위한 거점으로 삼아왔기 때문에 쉽게 손을 떼기 어렵다. 또한 아프리카에서 러시아는 영향력을 확대해 왔으나 니제르 바움 대통령의 서방 친화정책으로 인근 다른 국가와 달리 러시아와 유착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한 곳으로 서방 세계는 어떤 식으로든 니제르에서 철수하게 되면 러시아가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된다.

## 北 해커들, 러 주요 미사일업체 해킹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북한 해커집단이 러시아 주요 미사일 개발업체(NPO)의 방화벽을 뚫는 데 성공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1944년 설립된 NPO 마쉬는 러시아의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우주 발사체 개발 등에 관여했으며 현재도 극초음속 미사일과 위성 기술, 차세대 탄도탄 개발에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해커들이 최신 무기와 관련한 정보를 빼냈다면 하더라도 즉시 무기를 만들 수는 없다고 전망

했다. 다만 무기개발에 정보를 참조하는 것만으로도 성과를 얻을 수 있다. NPO 마쉬가 개발한 무기 중에는 '연료 앰플화' 기술이 적용된 액체연료 ICBM이 있다. 제조 단계에서 엔진에 연료를 주입해 밀봉하는 기술인 앰플화를 통해 액체연료 미사일을 신속하게 발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공교롭게도 북한 해커들이 NPO 마쉬 침입에 성공한 것과 비슷한 시점에 북한은 미사일 연료 앰플화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 교대 인기 뚝... 합격선 4년 새 최저

종로학원이 대입정보포털 '어디가'에 공개된 2020학년도 이후 교대·초등교육과 내신·수능 합격점수 70% 기준점(컷)을 분석한 결과 2023학년도 내신과 수능 합격점수가 모두 최저치를 기록했다. 교대와 초등교육과의 2023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 합격자 70% 기준점 내신점수는 2.1등급으로 2022학년도 1.8등급보다 0.3등급 하락했다. 수능의 경우도 국어·수학·탐구 백분위 평균이 2023학년도에 82.9점을 기록해 2022학년도 86.1점에 비해

3.2점 낮아졌다. 경쟁률도 떨어지고 있다. 2023학년도 경쟁률은 2 대 1로 전년도(2.4 대 1)는 물론이고 최근 5년 중 가장 낮았다. 이런 현상은 초등교사에 대한 직업 선호도가 약화됐다는 의미로 그 원인으로는 교대 정원보다 적어진 초등학교 교사 채용 규모와 교권 하락이 꼽힌다. 교대 정원은 2012년부터 11년간 동결(2016년 1명 감소해 3,847명)됐지만, 초등 임용시험 합격자는 2012년 6,669명에서 지난해 3,565명까지 줄었다.

## 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60% 돌파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 조사 고령층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고령층 인구는 1548만1000명을 기록했다. 고령층(55~79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처음으로 60%를 돌파했다. 이들 가운데 3명 중 2명은 앞으로도 계속 일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하고 싶은 사유는 '생활비에 보탬(55.8%)'이 가장 많았고 '일하는 즐거움(35.6%)'이 뒤를 이었다. 일하고 싶어 하는

비중은 남자(77.3%)가 여자(60.3%)보다 많았다. 고령층 인구 희망 근로 연령은 평균 73세며 희망하는 월평균 임금수준은 200만~250만 원 미만(19.8%)과 150만~200만 원 미만(18.6%)이 높게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연금을 수령한 고령층의 비율은 50.3%(778만3000명)로 지난해 동월 대비 0.9%포인트(p) 상승했다.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75만 원으로 작년보다 8.6% 증가했다.

## 반려견 등록 안 하면 과태료 100만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등록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별로 10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에 앞서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8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를 방문해 등록하면 된다. 2개월령 이상으로 반려 목적으로 기르거나 주

택·준주택에서 기르는 개는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등록 의무 위반 시 100만 원 이하,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변경 신고는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로 '국가동물보호정보 시스템'과 '정부 24' 등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 월드와이드 신문을 정기구독하세요

유익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월드와이드 신문이 정기구독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꾸준히 원하는 장소에서 월드와이드 신문을 받아 보고 싶으신 분은 월드와이드 신문 블로그(<http://blog.naver.com/wwpublish/>)에 방문하셔서 <정기구독>란에 비밀글로 주소를 남겨 주시길 바랍니다. 매월 신문이 발행되면 제일 먼저 무료 배송해 드립니다.



# 코로나 끝난 것 아니었어?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5만 명대 후반까지 치솟으면서 다시 재유행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면역력이 떨어졌고 현재 우세종인 XBB 1.5의 면역 회피가 뛰어난 데다 방역도 완화되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독감, 감기도 함께 유행하면서 여러 감염병이 동시에 퍼지는 멀티데믹까지도 우려되므로 건강에 유의해야 한다.

## 전 국민 99% 항체 보유, 코로나 확산 이유는

우리 국민의 99% 이상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연 감염과 백신 접종을 통한 항체를 모두 포함한 수치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에 따르면 자연감염과 백신 접종을 통한 항체를 합친 전체 항체양성률은 99.2%로 1차 조사(작년 8~9월) 때의 97.6%, 2차 조사(작년 12월) 때의 98.6%와 비슷한 수준에서 소폭 증가했다. 자연감염 항체양성률은 78.6%로 2차 조사 결과인 70%보다 8.6% 포인트 증가했다. 국민의 10명 중 8명가량이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고, 그로 인한 항체를 아직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코로나19에 감염됐지만, 의료기관을 통한 확진을 받지 않아 통계에 잡히지 않은 미확진 감염자, 이른바 ‘숨은 감염자’의 비율은 19.1%로 추정됐는데, 1차(19.4%), 2차(18.5%)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만 재감염 위험은 계속 남아있다. 항체기는 시간이 경과하면서 감소하기 때문이다. 질병청은 백신 미접종자는 기본접종인 단가백신접종자에 비해 2.02배, 변이종에 대한 항체를 포함한 2가 백신 접종자에 비해 3.1배 높은 재감염 위험이 있음을 확인했다.

## 코로나 먹는 치료제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코로나19 확진 환자의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로써 1일 2회씩 총 5일간 정해진 용법·용량에 맞게 복용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는 고위험군 환자의 중증 진행(입원 및 사망)을 예방한다. 확진 초기, 처

방받는 즉시 시작한다. 증상이 경미하거나 호전되더라도 5일치를 모두 복용해야 한다.

### ■팍스로비드 식약처 정식 허가

코로나19 확산 기간 중 긴급사용승인으로 국내에 최초로 도입된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니르마트렐비르, 리토나비르)’가 국내에서 신약으로 정식 허가를 받았다. 허가에 따라 팍스로비드는 입원이나 사망을 포함한 중증 코로나19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에서 경증~중등증 코로나19 환자 치료제 사용 가능하다.

팍스로비드 투여 불가 환자(병용 금기 의약품 복용자, 신장에·간장에 환자, 삼킴 곤란 환자)에게는 라게브리오 처방을 고려할 수 있다.

### - 팍스로비드 복용방법

니르마트렐비르는 단백질분해효소(3CL protease)를 차단해 바이러스 복제에 필요한 단백질의 생성을 막아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고, 리토나비르는 니르마트렐비르를 분해하는 효소(CYP3A4)를 억제해 니르마트렐비르의 지속시간을 연장시킨다.

분홍색 니르마트렐비르 정제 2개와 흰색 리토나비르 정제 1개를 1일 2회(아침과 저녁) 5일간 복용한다. 각 복용 시마다, 정제 3개를 모두 동시에 복용한다.

### - 복용시 유의사항

- ①정제를 씹거나 부수지 말고, 통째로 삼킨다.
- ②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팍스로비드를 복용한다.
- ③상태가 좋다고 느껴더라도, 의료전문가와 상의 없이 팍스로비드의 복용을 중단하지 않는다.
- ④팍스로비드 복용을 잊은 경우, 기존 복용 시간에서 8시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즉시 복용한다. 8시간 이상 복용을 잊은 경우에는 놓친 용량을 건너뛰고 다음 회차 용량을 정해진 시간에 복용한다. 한꺼번

에 두 배의 용량을 복용하지 않는다.

⑤5일 후에 상태가 악화되거나 상태가 좋지 않다고 느낀다면 의료전문가와 상의한다.

### ■국내 코로나 치료제

정부 기관의 허가를 기다리는 코로나19 치료제는 일동제약 조코바(엔시트렐비르), 현대바이오 제프티다. 조코바는 일본 시오노기 제약이 개발하고 국내 입상은 일동제약이 담당해 판권을 갖고 있다. 1일 1회 5일간 복용하는 경구용 항바이러스제다. 3CL-프로테아제를 선택적으로 억제해 코로나19 감염을 유발하는 SARS-CoV-2 바이러스의 체내 증식을 막는 기전을 가진다. 조코바는 일본에서 지난해 11월 긴급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출시 이후 4개월간 1조 원(1047억엔)에 가까운 매출을 올렸다. 현재 일본 내 시장 점유율 6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에서 긴급사용승인을 받으면서 국내에서도 긴급사용 승인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지만, 지난해 국내 긴급사용승인이 불발됐다.

현대바이오는 국내에서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중 경증과 중등증 환자를 위한 경구 치료제는 제프티가 유일하다고 강조한다. 실제 미국 화이자의 팍스로비드도 경증 및 중등증 환자에게 투여가 허용됐지만 기존 복용 중인 약물과 병행해 사용할 경우 부작용이 우려돼 의사들이 처방을 꺼린다.

국내 코로나 치료제 승인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코로나19 치명률이 낮아지는 데다 긴급성을 요구하는 팬데믹 상황이 아니고 이미 확보해 놓은 기존 출시 치료제의 재고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기 때문이다. 팍스로비드 36만 명분, 라게브리오 11만 명분 재고를 보유 중이다.

## 말라리아 국내 확산

세계 전염병 사망 1위인 말라리아의 국내 환자 수가 올해 들어 현재까지 500명을 넘어섰다. 말라리아는 대부분의 열대 지역에서 발생하며, 매년 1억 5000만 명의 환자가 발생한다. 아프리카 대륙 하나만 해도 매년 5세 미만 어린이가 100만 명 넘게 사망하는 것으로 보고된다. 말라리아는 주로 모기에 의해 감염된다. 국내에는 1970년대 중반까지 양성인 삼일열 말라리아가 있었지만, 그 후 소멸했다가 1993년부터 다시 나타나고 있다.

말라리아의 전형적인 증상은 두통, 식욕부진의 초기 증상이 나타난 후, 수일 내에 오한과 고열이 발생한다. 체온이 39~41℃로 상승하며 심하게 춥고 떨리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삼일열 말라리아는 하루는 열이 나고 하루는 열이 전혀 없다가 다시 그다음 날 열이 나는 패턴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열대열 말라리아는 발열이 계속되거나 매일 열이 나는 경우가 많다.



## 동남아 여행, 감염병 주의

구분	장티푸스	뎅기열	지카바이러스	홍역
발생 국가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원인	오염된 물 또는 음식을 먹은 경우	뎅기바이러스에 감염된 숲모기에 물린 경우	지카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에 물린 경우	호흡기 분비물 등 비말(침)과 공기에 의한 감염
주증상	고열 지속, 오한, 두통, 설사, 복통 등	발열, 두통, 근육통, 관절통, 식욕부진	반점구진성 발진, 발열, 관절통, 결막염, 근육통, 두통 등	고열, 발진, 콧물, 결막염 등
예방 관리	손 씻기, 길거리 음식 합부로 먹지 않기, 물 끓여 먹기, 과일, 채소는 깨끗이 씻어 껍질 벗겨 먹기	긴소매, 긴바지 착용, 모기기피제, 모기장, 방충망 사용	긴소매, 긴바지 착용, 모기기피제, 모기장, 방충망 사용, 임신부는 여행연기 권고	손 씻기,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백신접종	출국 최소 2주 전 접종	예방백신×	예방백신×	출국 최소 8주 전 총 2회 접종

#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은 천국에 갈 수 없나요?

한국인들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 반응할 때 가장 많이 묻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시대의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갔나?”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짧지만, 핵심적인 답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고, 많은 기독교인이 기독교를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내용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필수적인 통로로서의 예수님의 유일성에 대해 전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만 놓고 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시대가 예수님이 전해진 시대보다 훨씬 더 길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은 한국인들이 사는 동안 그 이름을 듣고 죽은 분들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전해지지 않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었으니까, 다 지옥에 간 거냐 하는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 있습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저는 이런 질문이 타당하고, 충분히 정당하게 제기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이 질문에 대해 어디까지 대답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놓고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특히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옥에 갔나 하는 질문을 많이들 하십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같은 그런 존경받는 생애를 살았던 사람들도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옥에 갔겠는가, 만약 그랬다면 기독교의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냐 하는 논리를 내세우기 위해 대표적으로 이 두 인물을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인물들까지 단지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시대에 살았다는 이유로, 자기 잘못도 아닌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무조건 다 지옥에 보내버린 하나님이라면 불공평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기독교의 복음이 이렇게나 뒤늦게야 들어와서, 괜히 착한 우리 조상들을 죄다 지옥에 보내버리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하는 것 자체가 과연 공평한 건가?’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느낍니다.

이 문제에 대해 기독교인들이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고도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불공평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고도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가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불공평

하다. 왜 나를 지옥에 보내는가?”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구원 문제를 놓고 기독교가 그나마 분명하게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알게 해주신 지식만큼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각 사람이 양심을 갖고 있으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던 시대에도 그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창조주가 존재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그 각 사람이 지니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어떤 기준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볼 때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진 이후에 사는 시대의 사람들과는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그 누구도 불공평하게 대하시거나 정당하지 않게 처리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시대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잘못이 아닌 그 이유만으로 무조건 다 지옥에 가는 일은 애초부터 없었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불공평해 보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을 불공평한 분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최종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온 세상의 만민과 만사를 다 아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지 않은 시대에 살았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하는 기준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사람을 구원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모든 사람을 다 아시고, 그들 각자의 일생 동안 그들의 말과 행동의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다 아십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정말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라는 것을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말 어떤 인생을 살았는지, 그들의 속 깊은 양심에서부터 진정으로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 우리가 볼 수 있는 관점은 하나님께서만 보실 수 있는 관점과 꽤 많이 다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쨌거나 분명한 것은, 어느 때나 각 사람의 궁극적인 구원은 하나님께서만 보실 수 있는 관점에서 이뤄져 왔고, 모든 사람은 바로 그 공평한 관점에서

각자가 다 정당하게 구원의 대열에 서거나, 그렇지 않거나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주전 1세기경에 그 당시까지는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던 그리스 아테네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였으니”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한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에 반응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원천적인 무지나 무능에 대해, 하나님께서 딱히 문제 삼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어디든지”라는 말로 특정 시공간의 전환점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진 이후의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마땅히 회개해야 할 책임을 준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친히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마 24:14).”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인류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세상의 끝날이 그만큼 가까워진 때이고, 교회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들림 받아갈 때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온 세상이 동시에 갑자기 맞이하게 될 그 사건 때문이라도 적어도 그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져 그들 각자에게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기독교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여러 관점에서 좀더 설득력 있게 풀어갈 수도 있겠지만, 부족한 대로 이 정도라도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이 문제가 주된 걸림돌이 되지 않을 만큼은 오해가 풀렸으면 합니다.



안환균 목사

- 그말씀교회 담임, 변증전도연구소장  
- <기독교 팩트체크>(두란노),  
<하나님은 정말 어디 계시는가>(규장)

변증전도연구소장인 안환균목사는 철저히 비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그들이 아이들을 위한 논리와 내용으로 예수님에 대하여 알려준다. 이 콘텐츠는 유튜브 '5분 갓토크'에서도 만나볼 수 있다.



복음은 영어로 Good News입니다. 곧 복된 소식입니다. 복음은 아담 이후로 이 세상에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가장 복된 소식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에 대하여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로마서 1:16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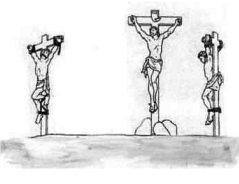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첫 사람 아담은 자신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인 참 생명의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마귀의 미혹을 받아 자기 욕망에 이끌려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세상에 죄가 들어와, 모든 사람이 그(죄)의 길을 따라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죄란, 나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 세상의 자랑을 좇아 오로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무서운 심판과 영원한 사망을 낳게 합니다.

3



사랑의 하나님은 사람들이 지은 그 무지한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 주심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죄의 삯인 죽음의 형벌을 우리 대신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해, 그 죽음에서 먼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4



사람이 자기 뜻대로 세상에 태어날 수 없는 것처럼, 죽음 후에도 자기 뜻대로 부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는 육신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나듯이, 죽음 후에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에 의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 죄를 위해, 자신을 버리신 단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시어, 영원한 생명과 참 평안을 얻기 바랍니다.

1			10		8			9	
			10	11				9	
2		2				7			
									15
4				6					
		3	5				14		
5	3				18				
				13		16			17
	11	12							
		12				15			

9. 사물의 기본이 되는 토대
10. 쇠고기, 돼지고기 따위를 파는 가게
11. 죄나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음
12.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기독교의 전파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
13. 근거 없는 사실을 조작하여 상대방을 모략하고 혼란하게 하는 정치적 술책
14. 있어야 할 것이 빠지거나 모자라는 증세
15. 어떤 물건을 실제로 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김

16. 어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주의나 주장에 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마음속에 굳어진 견해
17. 신이나 초자연적 절대자를 믿고 따르는 마음
18. 천이나 머리카락 따위에 염료를 써서 물을 들임

<지난 7/8월호 정답입니다>

퇴	임		낙	찰	가			부	채
직			하		로		시	동	
금	수	강	산		등	용		맥	추
	평					수			정
	선	풍	기			철	권	통	치
			회	전	문			풍	
	꾸				방	황		구	원
정	중	동		친	구				기
수		거		인		여	행		회
리		인	기	척			운	동	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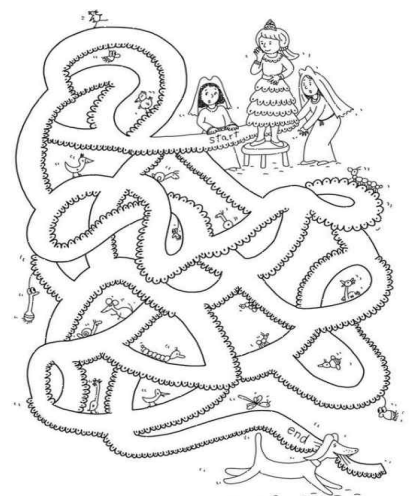
#### 가로문제

1. 매우 심한 더위
2. 설거지할 때 그릇을 씻는 데 쓰는 물건
3. 사람이 낮고 가는 목소리로 정답게 가만히 하는 소리
4. 유라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대륙으로 둘러싸여 있는 지구상에서 가장 큰 해양
5. 어려운 일의 성취나 기록 경신 따위에 나서는 일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6. 높은 온도에서 달군 금속 재료를 물이나 기름에 넣어 급격하게 식히는 일
7. 건축이나 토목, 비석, 조각 따위에 쓰일 돌을 떠내는 곳
8. 예수 부활 축일의 바로 전 주일. 수난 전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수를 향하여, 많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한 날

#### 세로문제

1. 높고 곧은 절벽에서 곧장 쏟아져 내리는 물줄기
2. 예로부터 전해 오는 아름답고 좋은 풍속
3. 어떤 특정한 물건을 벌여 놓고 일반 사람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보이는 모임
4. 우리나라 전통 무예를 바탕으로 한 운동
5. 기록이나 문헌 따위의 내용이나 문구를 지우거나 없앴
6. 어떤 학급이나 학년 따위를 책임지고 맡음
7. 어떻게 행동하기를 따지어 독촉하는 행위
8. 기차나 버스 따위가 운행되는 일정한 구간의 맨 끝이 되는 지점
9. 그날그날 겪은 일이나 생각, 느낌 따위를 적는 장부
10.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움
11. 어린아이를 기름
12. 부족하거나 잘못된 것을 고쳐서 나아지게 함
13. 없었던 일로 치거나 잊고 싶을 만큼 부끄러운 과거
14. 운동 경기 따위에서, 마지막으로 승부를 가리는 시합
15. 기억력이 좋지 못하여 기억해야 할 무언가를 잘 잊어버림

#### 미로찾기



북한 복음화, 예배의 기름부음, 열방을 향한 뜨거운  
선교비전, 차세대 리더십양육과 이 땅의 문화변혁의 리더십을  
꿈꾸는 교회



월드와이드교회는 건강한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서울노회 소속입니다



행복의 문을 여는  
월드와이드 교회

## 주님의 영웅 ■ 7월 14~15일 “일어나라! 제사장 나라여”



## 차세대 여름 사역



유치부



차세대 부모 특강



유년부



고등부



필리핀 아웃리치 파송식



십자가 제작 작업



요셉 청년 김은재



윤승기/김한비의 아들 윤아준



삼산1목장-하지원성도



경인목장  
박상근 장로

## “인생 후반전의 삶도 함께하시길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열심히 교회에 다니던 친구의 권유로 ‘문학의 밤’에 초대되어 해화동에 있는 해성교회에 처음 나가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와 군대에서는 예배만 드리다 청년부에서 한 자매를 만나 결혼하였고 결혼 후부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교사를 하며 봉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첫 직장인 현대에 입사해서 근무하며 지내던 중 정주영 회장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게 되어 저는 국민당원으로 사원증을 반납하고 잠실에서 한 달간 선거운동을 도왔습니다. 대선 참패 후 현대그룹은 뉴스의 집 종포화를 받아 어려움에 빠졌고, 미래에 대한 불투명으로 고민 끝에 대우 그룹 중앙연구소로 직장을 옮겨 용인으로 이사 가게 되었습니다. 지구촌 교회에 7년간 다니며 바른 신앙관에 대해 정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지구촌 교회를 떠나선 교사가 되라. 개척교회나 작은 교회를 섬기는 것도 선교사역이다”라고 강조하여 삼산동으로 이사 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나 회피하는 마음 없이 2006년 1월에 월드와이드교회 7층에서 첫 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우그룹 중앙연구소로 옮기며 독일 포르쉐에서 6개월, 영국 워딩 연구소에서 6개

월이라는 파견근무를 하며 유럽을 경험하며 옮기기를 잘했다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계갈 줄 알았던 IMF때 대우그룹 중앙연구소는 대우그룹과 함께 해체되어 대우자동차로 이직하며 용인에서 부평으로 이사 오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5년간 동결되면서 어려운 시기를 보내며 불투명한 미래에 대하여 불안감으로 조금씩 주님께 불평 아닌 불평을 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선임 연구원으로 이직했던 저는 어려운 시기를 겪으며 새로운 업무와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팀장 진급 때마다 문턱에서 고배를 마셔야 했습니다. 기존 직원들과 달리 저는 동기들에 비해 12년이란 공백기를 가지고 중간에 들어왔기에 업무나 인사고과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두가 맡길 꺼리는 업무가 저에게 맡겨졌습니다. 아침 7시부터 시작되어 저녁 늦게까지 진행되는 회의로 점점 지쳤고 당뇨병과 고지혈증이 하나씩 찾아오며 늘 피로감에 하루하루를 버티며 지내고 있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루는 아내가 안쓰러웠는지 나를 위해 집 근처의 교회에 새벽기도를 드릴 테니 열심히 기도하며 인내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라고 위로해 주었습니다.

2년간 기도드리고 낮을 때 선배가 다른 본부에서 팀장을 공모한다는 소식을 알려 주

며, 구조해석과 시스템 엔지니어 경험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며 당신이 중앙연구소에 근무한 경험이 있고 지금 시스템 엔지니어 업무를 하고 있으니 적합한 자리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공모하는 본부장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두 달 후에 팀장이 되었습니다. 짐같이 여겨졌던 중앙연구소 연구 경력과 벗어나고 싶었던 시스템 엔지니어란 자리가 주님께서는 저에게 미리 준비되게 하셔서 팀장으로 진급을 하는 디딤돌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보통 진급은 자기가 속한 본부에서 가능하였기에 제가 몸담았던 본부와 새로운 본부에서도 모두 놀라는 눈치였고, 직장 동료들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느냐며 물어볼 때 저는 간증 아닌 간증을 하게 되었고, 후에 팀원들에게 교회에 초청할 때 간증 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해에 회사 법무팀에서 호출을 하였습니다. 업무 중에 기술적인 결정을 잘못하여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이 주었고, 그 외에 새로운 본부에 경력이 없는 낙한 인사이며 종교를 강요하고 몇몇 팀원들만 만나 편애하고 그 팀원들에게 고과를 잘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무팀에 소환되면 최소한 정직당하거나 어쩌면 회사를 퇴사할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듣고 당황하였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팀원들을 전도했는데 왜 저한테 이

같은 일을 당하게 하시는지 알 수 없어 주님을 원망하였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내용을 알리며 중보기도를 요청하였고, 담임 목사님께 기도 요청을 드리며 기도로 위로함을 받았습니다. 한 달간 조사 끝에 “혐의없음”으로 조사가 끝났습니다.

IMF 이후 50세를 넘기지 못하고 회사를 떠날 줄 알았는데 여러 번의 명퇴의 칼날을 피하게 하시며 2022년 12월에 31년간의 직장 생활을 잘 마무리하며 정년퇴임의 기쁨을 주셨습니다.

제2의 인생을 위해 올해 1월에 원서를 넣었던 곳에서 합격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어 지금은 고려 사이버대에서 학생을 가르치며 1학기를 잘 마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밤낮으로 보호하시며 만나를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고기가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던 모습이 지나간 나의 모습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운 과정이 있을 때마다 중보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어려움을 헤쳐나가게 해주시며 더 좋은 것으로 앞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담대히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의 인생의 후반전에도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설레고 있습니다.

### 전도의 새봄을 열어주는 월드와이드 신문을 소개합니다

경제, 연예, 문화, 창조과학, 교육, 의학, 역사, 건강, 성공학에 이르기까지 사회적인 이슈를 선별하여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를 실으실 수 있습니다. (3면) 매월, 교회 주변의 지역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대화의 문을 여는

창구의 역할이 됩니다.

- 성도님들이 언제든지 손쉽게 들고나가 길거리 전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알찬 내용 자체가 유익을 주기 때문에 선물처럼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 편집, 발행, 배달까지 담당해 드리므로

편집부나 출판부가 없는 중·소 교회의 경우 더 큰 유익이 있습니다.

- 매월 최소 3천부에서 2만부까지 다양한 분량을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및 문의  
032-501-9686

### 월드와이드신문과 함께하세요

신문이 필요한 분은 10부, 20부, 50부, 100부씩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신문대금은 받지 않으며 원하시면 후원계좌로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100-021-800947 신한은행  
(예금주: 월드와이드교회)

박인용 담임목사 주일설교 안내

- [www.wwch.or.kr](http://www.wwch.or.kr)
- 라디오 극동방송 Fm106.9
- GOODTV(매주 목요일 오전 5시, 매주 토요일 오전 5시 50분)
- C3TV 인터넷 방송
- C3TV 모바일방송 KTF\*\*91-302n
- 스카이라이프채널 Ch414

### 월드와이드교회 예배시간안내

	부서	시간	장소
새벽	월~금	오전 5:10	지하1층 본당
	토	오전 6:00	지하1층 본당
주일	1부	오전 9:00	지하1층 본당
	2부	오전 11:15	지하1층 본당
	3부	오후 2:00	지하1층 본당
	4부(청년예배)	오후 4:00	지하1층 본당
주중	화요중보예배	오전 10:15	지하1층 본당
	수요저녁예배	오후 8:00	지하1층 본당
	목요심야기도회	오후 8:00	지하1층 본당
	영아부(해피랜드 1~4세)	오전 11:30	2층 해피랜드홀
주일	유치부(판타지랜드 5~7세)	오전 11:30	2층 판타지랜드
	유년부(드림랜드 1~3학년)	오전 11:20	3층 드림랜드홀
	초등부(조이랜드 4~6학년)	오전 11:20	3층 조이랜드홀
	중등부	오전 11:00	지하2층 블루오홀
국제사역	고등부	오전 9:00	지하2층 블루오홀
	영어예배	오후 2:30	지하2층 블루오홀
	미얀마예배	오후 3:30	지하2층 블루오홀
	카렌족예배	오후 1:00	지하2층 블루오홀

### 월드와이드교회 오시는 길



축복의 불루오션  
월드와이드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Worldwide Community Church

- 주소: (우)21343/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58-3 도로명) 인천 부평구 삼산동체육관로 82
- 전화: 032)501-9686~7
- Fax: 032)503-9686
- <http://www.wwch.or.kr>

## 2023 하반기 문화아카데미

## 32기 월드와이드 문화아카데미 강좌

대상 : 지역교회성도 및 지역민 누구나

강좌일정 : 2023년 10월 5일(수) ~ 11월 24일(목) (최대 8주)

접수기간 : 2023년 9월 1일 ~ 10월 4일

접수 : 월드와이드교회 032-501-9686~7 (체육관로 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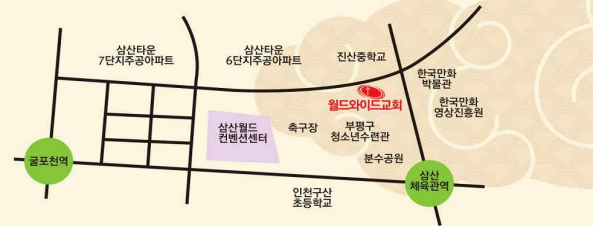
강의명	강사	강사 소개	일정	요일 강의시간	강의실	수강료	정원
홈패션	양호정	홈패션 전문강사 다수 문화센터 출강	10월 5일 ~ 11월 23일 (8주 강좌)	목 오전 10시 20 ~ 11시 30분	지하2층 중고등부실	1만원	5명
건강한 가정을 위한 심리상담	이희순	홍대미대 졸업. 명지대학 미술치료전공	10월 6일 ~ 11월 24일 (8주 강좌)	목 오전 10시 ~ 12시	2층 영아부	1만원	10명
홀트로 100세 살기	손향숙	전 YS휘트니스센터 강사 현 휘트니스GX 강사 (태보, 근력, 춤바댄스)	10월 7일 ~ 11월 11일 (6주 강좌)	금 오후 1시 30분 ~ 2시 30분	2층 영아부	1만원	6명
카페 바리스타 입문	최경순	월드와이드스테이션 카페바리스타	10월 8일 ~ 10월 29일 (4주 강좌)	토 오후 10시 30분 ~ 12시	1층 카페	1만원	10명

\* 장소 및 강사료는 교회에서 후원하며 지역봉사를  
위해 최소한의 수업집중을 위한 등록비를 받습니다.  
모두 행복발전소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팀장 : 강현수권사 (010-4155-6512)

총무 : 김순보권사 (010-9062-7772)

담당 : 최성훈목사 (010-4526-4065)



## &lt;월드와이드 카페 오픈시간&gt;

매주 화~토 정오~오후 4시

주일-종일 오픈합니다.

## 제 1회 월드와이드배 청소년 3대3 농구대회

청소년 3대3  
농구대회"동네 청소년들아!~  
모여라!"

신청기간 : 9월 19일(화) ~ 선착순

\* 팀 구성 : 1팀 5명(후보 2명 포함)

\* 참가자격 : 1) 중·고등학생 및 동연령 청소년  
2) 형평성을 고려하여 엘리트 선수출신  
청소년은 대회에 참가할 수 없음

\* 참가비 : 1인당 5,000원

\* 시상 : 중·고등부 각각

1등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

\* 경기규칙 : 중·고등부 각각 토너먼트 경기운영  
(FIBA 3x3 경기규칙을 준용함)

\* 문의 : 최승진 전도사 (010-7552-7350)

2023.10.28(토)  
오전 10:00 ~ 오후 5:00

장소 : 삼산체육공원 야외 농구장